

죽음 부른 캠퍼스 음주...근절 대책 시급

학과실에서 밤늦게까지 술 마신 대학생 투신 숨져 전면 금지에도 몰래 술...잔디밭 치맥 등 일상 풍경 사망·사고 빈발하는데 대학측 방지 시스템은 허술

광주지역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음주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교내 학과실에서 학교 선배 등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대학생이 투신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교내 음주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대학들은 상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음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징계 등이 전무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계적 통제방식인 무인경비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건물마다 배치돼 있던 경비인력이 줄어든 점도 학생들의 교내 음주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모 대학 8층 발코니에서 이 학교 3학년 A씨가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날 A씨는 3층 학과실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대학원생 B(26)씨 등과 전날 밤 10시께부터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없고 검시결과 A씨에게서 다발성 골절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 8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교내에서 해마다 음주와 연관돼 학생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교내 음주문화와 사고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대학도 상벌규정을 살펴보면, 교내에서 음주, 소란, 소요

등의 행위로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지만, 현재까지 단 1건의 징계도 없었다.

특히 이 대학의 단과대 및 학교 건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된 이후 경비시스템이 작동돼 신분 확인 없이 외부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학생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다.

실제 학생들은 24시간 건물 출입문 앞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이름, 학과, 학번만 말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교내로 들어갈 수 있다. 경비원 등이 없어 야간에 외부에서 술을 구입해 학과실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근 10년간 여러 차례의 음주 사고가 발생했던 이 대학도 상벌규정을 통해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를 하고 등교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1건의 징계도 없었다.

이 학교는 특히 각 단과대학별 교내음주

를 자체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학과실 등에서 새벽까지 남아 공공연하게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도 제재가 없다는 게 해당 학생들의 귀띔이다.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는 음주와 관련한 학칙과 상벌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밤늦을 가리지 않고 벤치나 잔디 광장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일부 학생은 '캠퍼스의 낭만' 등을 내세워 캠퍼스 음주를 찬성하고 있지만, 학생 대부분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교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교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인경비보안시스템 도입 이후 건물마다 있었던 경비원이 줄어들어 학생과 학과실을 직접 살피고 음주 등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찾김 범죄 잇따라

“왜 날 욕해”...초등생 제자 때린 선생님

‘잘못했다’ 1000번 쓰게 해

목포경찰청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때린 목포의 모 초등학교 교사 A(59)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께 10여분간 제자 B(10·4학년)군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독후감 숙제를 하지 않은 B군을 혼계했으며, 이후 제자들로부터

터 B군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폭행과 함께 선풍기를 바다에 던지고,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1000번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선풍기를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B군의 머리를 3번 정도 밀었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 반성문도 평소 제자들을 상대로 말로만 1000번씩 쓰도록 할 뿐이지,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그만 쓰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왜 부모 욕해”...친구 동생 찌른 대학생

채팅하다 격분해 범행

광주북부경찰청은 “친구 동생이 게임 도중 자신의 부모를 욕하자 찾아가 흥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대학생 김모(20)씨를 불집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피시방에서 흥기로 A(17)군의 머리와 팔 등을 10여 차례 찌러 10여 군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피시방에서 자신의 동생(17)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A군이 채팅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반복한 데 격분해 찾아가 찾아가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A군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욕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빛원전 4호기 폐쇄 촉구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이 21일 광주 YMCA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 한빛원전 4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중순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이물질까지 발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명주기자 mina@

광주 모텔에서 30대 남성 갑자기 숨져 함께 투숙한 여성 마약 투약 혐의 조사

광주의 한 무인모텔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함께 투숙한 여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무인모텔 객실에서 A(33)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투숙한 B(여·33)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

다. A씨의 왼쪽 팔에는 작게 멍든 흔적이 있었고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운영하던 노래방 직원인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샤워하다가 넘어졌었다”며 “자다가 구토를 하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오자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문

제의 주사기는 구급대원이 A씨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최근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마약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만큼 B씨의 모발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고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방침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검거

서울서초경찰청은 21일 “여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28)씨를 불집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고모(45)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문제를 두고 다른 가족과 분쟁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고씨에게 상수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기로 했으나, 고씨가 1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통행 방해 주차에 분통...차량 유리에 유성매직 ‘분풀이 나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상습적으로 주차한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 앞 유리에 유성매직으로 낙서한 50대 남성이 경찰서 행.

○“21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서모(59)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최모(62)씨의 그랜저 차량 앞유

리에 유성 매직으로 ‘이곳은 주차금지’(가로 50cm·세로 15cm 크기)라고 써 4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평소 최씨의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서씨는 경찰에서 “매번 최씨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여러번 항의했지만 똑같은 곳에 주차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서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